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혁신모델 제시

임실군, 농산어촌개발

신전 · 두월마을 선정

임실군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관촌면 신전마을'과 '삼계면 두월마을'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종합개발사업에 지난 30일 각각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전마을(대표 김동업)은 다락골문화센터 신축 등 해당 사업비로 7억원을 확보했으며, 두월마을(대표 김재성)은 들노래사랑방 리모델링 등 관련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 마을만들기 대학' 등 군의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다



관촌면 신전마을과 삼계면 두월마을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질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 전문가와 함께 많은 회의를 거쳐 최종 예비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2월 사업 신청에 이어 전라북도 심사, 3월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17억 확보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에 공모한 10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사업비 117억원(국비 8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산동면과 아영면의 2개면(80억원/면 당 40억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자율개발 6개·효기·송내·수월·서당·부석·서정, 산림휴양치유마

을 1개·달궁)에 7개 마을(35억원/마을당 5억원), 시군역량 사업(2.5억)이 각각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은 필수사업을 이행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광역단체와 중앙평가에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17년 10개 사업 102억, 2018년 14개 192억

을 확보해 사매면, 대강면, 산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생대지, 아영 두락 등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공모 성과는 시 관련부서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시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노력

남원시가 농촌과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115개

공동주택 단지에 24억96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21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고 2개 단지는 9월말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620-659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17년도 재정운영 결과 공시

남원시는 최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정 운영 결과를 심의·의결 했으며, 공시자료는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시보 등에 1년 이상 공시한다.

남원시의 지난해 총 예산규모는 8,038억원(일반회계 7,294억원, 특별회계 631억원, 기금 113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91억원, 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존재원은 5,61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는 1,085억원(이월사업비 934억원 포함), 지방채무는 0원으로 공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기업유치 등 자체세입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이 30일 순창군 장애인 체육관에서 참석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역농업의 희망을 찾다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 성황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희망을 찾기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이 30일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장애인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특별교육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협의회에서 주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아열대 작물의 적응재배 등 다양한 6차산업 접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회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특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식전행사로 생활개선회 동아리 활동으로 익힌 우크렐라, 트럼폴린 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북돋았고, 특별교육 시간에는 전북식량기비연구회 김기원 강사가 "음식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음식의 중요성을 강의해 회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순창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어 이번 특별교육이 순창군에 딱 맞는 알찬 교육이었다는 회원들의 평이 이어졌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의 순창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분들이다"면서 "성숙된 공동체 의식으로 농업 농촌을 이끌어 농사가 행복한 순창농업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등 1,200여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조상 땅 찾기 신청 접수

순창군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시행해 군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323명에게 1,225건의 조상 땅을 찾아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된 안심상속 신청 처리건은 70명 297건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본인의 토지나 법적 상속자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군 민원실에서 즉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모르고 있던 조상의 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산동면, 어울림 한마당 행사

남원시 산동면(면장 장진숙)은 오는 9월 1일 명민과 향우가 함께 어우러져 한마당 잔치로 모두가 하나 되는 제4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고소안 유원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산동면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산동면과 면 향우회, 천하제일 사료가 후원하며,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읍영을 폭염과 집중호우 지친 몸과 마음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계획이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난타팀 공연과 기념행사로 개회선언,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환영사, 축사가 진행되고, 공연행사로 초청가수 및 국악 공연, 화합행사로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과 만찬이 이어지고, 선원사 짜장면 봉사단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마을 순회버스 2대를 운행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 4명에 대한 공로패와 남다른 애함심으로 산동면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병호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진숙 산동면장은 "주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화합하는 자랑스러운 산동면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며,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명원 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농가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임실군, 농협 임실군지부 등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의회

임실군이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축협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군은 30일 종합상황실에서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을 비롯한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임실축협, 임실치즈농협, 임실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 관계자 등과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머리를 맞댔다.

지금까지 해 온 협력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 행정과 농·축협이 하나되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진두 부군수는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관계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임실군-농·축협간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널리 확산해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